

# 금강산관광과 연계 전략.. 남북관계 다시 '경색'

## 고려인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 北 이산상봉 일방 연기 배경과 전망

### 이석기 사건도 거론... 정부, 분리 대응 방침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나흘 앞둔 21일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발표하면서 모처럼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던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측에 대한 거친 비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했고, 우리 정부도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유감을 표하면서 맞박아졌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이산가족 상

봉이 단순한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수단임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활용하려 한 북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일방적 연기 발표의) 주된 배경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계 방침에 우리는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순서상

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먼저 개최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이날 이석기 의원 구속 사건을 이산상봉 행사 연기의 이유 중 하나로 비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연계 외에 북한의 요구 사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히 원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카드를 얻어낸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우리측이 더 절박한 이산상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북한의 합의 파기 가능성을 높이는 전방이다.

대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의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이산상봉 연기 발표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 가며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미·일 3국의 '선(先) 비핵화 조치' 요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관계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다시 속도조절을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산상봉 행사가 조만간 재개 계기를 찾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석 직전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문제와 이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상봉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일평생, 오매불망 가족을 만나려고 기다려왔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온 것을 생각해 이번에는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발표로 금강산에 체류중이던 선발대와 이산가족면회소 시설보수인력 등 75명을 태운 차량이 22일 오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 "시간이 없다"... 전면적 생사확인 시급

### 사라지는 이산가족 1세대... 해결 방안 없나

### 상봉신청자 44% 사망, 매년 4천명 세상 떠

이산가족 1세대는 질곡의 현대사를 웅변하는 '산 증인'이지만 20여 년 후면 대다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분단 후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혈육과 재회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이산가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의 사망과 고령화로 부모나 형제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줄

어지고 노환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아져 현재의 방식으로는 상봉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인구와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면적인 생사확인인구는 이산가족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다.

◇상봉 신청자 절반 가까이 이미 사망=198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9035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5만6544명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7만2491명 뿐이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약 4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세상을 뜨고 있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80세 이상이 49.4%에 달하는 등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80.1%를 차지해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내놓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더는 시간이 없다' 보고서에서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과 평균 기대여명으로 미뤄볼 때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하고, 20~24년 후면 모두 숨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가족과 만나려면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2000년 이후 18차례 걸쳐 1만 8000여명 상봉에 그쳐=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산가족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처음 성사됐다. 남측에서 35가족, 북측에서 30가족이 '고향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는 식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상봉했다.

그러나 이후 1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본격화됐다.

2000년 8월 1차 행사를 시작으로 2008년을 제외하면 2010년 18차 상봉까지 해마다 1~2번씩 열렸다. 이를 통해 남북에서 모두 3829가족, 1만 8143명이 상봉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산가족은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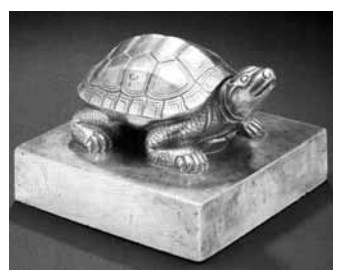
### 문정왕후 어보 연내 한국 돌아온다

#### 美 LA카운티박물관, 반환 결정

한국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몰래 가져가 미국 박물관에 소장 중인 중요 문화재 조선 문정왕후 어보(사진)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정왕후 어보를 소장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박물관(LACMA)은 19일(현지시간) LACMA를 방문한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에게 어보 반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어보 반환을 촉구하러 LACMA를 방문한 안 의원과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해문 스님, 경희대 김준혁 교수 등을 맞은 프레드 골드스틴 LACMA 수석 부관장은 "어보가 종묘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한국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골드스틴 부관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반환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고 싶



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LACMA가 경매 시장에서 사들여 소장하던 문정왕후 어보는 빠르면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공공 박물관인 LACMA가 소장품을 '장물'로 인정하고 자신해서 반환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어보는 조선 왕실에서 궁중 의례 때 왕실의 상징으로 쓰던 도장으로 종묘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병사가 무려 47개나 훔쳐간 것으로 추정된다.

###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검토

#### "기초연금 대선공약 못지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

다"면서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월출동 공장  
 대지: 광주광역시 건물: 2353㎡  
 감정가격: 21억6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금남로4가 빌딩  
 대지: 800㎡ 건물: 4834㎡  
 감정가격: 69억3천만원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쌍암동 무인텔  
 대지: 1760㎡ 건물: 2821㎡  
 감정가격: 46억 채권매각: 상담시 공개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국토비타운 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빌리지

도심속 전원링 방법주거 타로

010-5166-0013  
 신우공인중개사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도천동 창고 대지 2,500㎡, 건물 500㎡ 매매 18억
- \* 사우나건물(8층) 매 17억5천(보증금 8천, 월80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4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 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나주 혁신도시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4천 (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오양병원,축사 적합)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용 4.5억 포함)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 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에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 \* 동천동 대지 705㎡, 건물 185㎡. (수익률 좋음) 매매가 16억5천만원.
-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 수완지구 대지 316㎡, 건물 632㎡ 매매가 15억

**토지 매매**

-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 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062-513-4985, 010-2338-3113

**금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